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5호 [투게 제 24923호] 주체 104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주체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총련애국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과 조국해방 일흔셋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공화국의 자랑이고 민족의 영예인 제일본조신인 총련합회(총련)결성 예순셋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의 산아, 세계해방교포운동의 선구자로 그 이름 높은 총련은 지난 60년간 부단치는 모진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려왔다. 우리 당과 조국의 영광찬란한 70년 력사속에는 총련의 자랑스러운 60년 력사도 비껴가지 않는다.

이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 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받들어 조국과 숭고도 결속도 운동도 함께 하며 형인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뚫어헤쳐 온 전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가장 뜨거운 동포애정인사를 보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총련은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애국의 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일본조신인운동에 쌓아올린 불법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하였으며 총련조직을 애국의 대가 굳건한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였습시다.》

뜻깊은 총련결성기념일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주체적해방교포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총련의 창건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법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총련의 60년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방교포운동사상과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법의 업적을 떠나 총련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대해서도, 제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지난날 혼돈과 방황속에 헤매이던 제일본조신인운동이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명확한 강령과 과학적인 지도방법에 따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담해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하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는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주체적해방교포운동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신 총련의 창건자, 령도자이다.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더라도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로선전환 방침은 오직 모든 문제를 민족주체적관점과 림장에서 대하고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 애국애국리념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파멸의 위기에서 허덕이던 제일본조신인운동을 구원해준 은혜로운 해빛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주체 44(1955)년 5월 25일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제일동포들은 자기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참다운 조직을 가지고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안고 애국애국의 길에서 보람찬 삶을 빛어올수 있었다. 총련의 결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민족적애국운동의 본보기로 자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었다. 제일본조신인운동이 시련과 고통을 헤쳐며 힘차게 전진할수 없었음 그 나날에 제일동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뢰와 충모심은 총련을 조국에 결없이 충실한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게 한 원동력이었다. 주체적해방교포운동사상은 제일본조신인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여 온 나라인민들, 영원한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 조로 믿어주시고 보살펴주시었다. 총련국적으로 제일동포들을 보호해주시고 총련의 각계층 대표들을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동료동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학생들을 한결같이 안아 보살펴주시어 애비수행님의 전철같은 사랑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인 제일동포들만이 받아안을수 있었던 만복이었다. 총련일군들을 동지로, 제일동포들을 한시술로 뜨겁게 불러주시며 총련조직과 동료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도 끊임없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자연재해를 당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까지 보내주시어 애비수행님의 은정은 위대한

사람의 서사시로 제일본조신인운동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제일동포들을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려우도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제일본조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가게신다.

태양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총련이 새겨온 애국총련의 년대기들은 영광과 긍지로 빛나고있다. 총련은 이역방방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충심으로 받들며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제일본조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믿음직하게 이끌어나가는 권위있고 힘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총련은 민족적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뿐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헌신하여왔다. 총련을 말살하려는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심장속에 모시고 총련을 굳건히 사수보존하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국활동을 끝없이 벌려왔다. 최근년간 총련은 새 세대를 중심으로 애국력량을 보다 확대강화하였으며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일본조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기 위한 토대를 믿음직하게 마련하였다. 총련과 같이 이국방의 어려운 조건에서 중앙으로부터 하루말단에서 이르는 각급 조직들과 교육, 경제, 문화, 출판 보도기관들을 건설하게 꾸려놓고 광범한 동포대중을 든든히 묶어세워 민족적애국운동을 즐기치게 벌려나가고있는 그런 해외교포조직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승리의 영예를 안고 총련결성 예순셋을 맞는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대를 이어 수령, 장군부를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애국의 천만리길을 펴고서 걸갈 철석의 의지와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총련과 제일동포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재능의 영연한 대령으로 높이 모시고 제일본조신인운동을 주체의 길, 애국애국의 길, 강성병영의 길로 즐기치게 전진

시켜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해방교포운동사상과 불법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유훈은 총련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법의 지침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일본조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법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총련을 세계해방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총련과 제일본조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필승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총련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정세가 복잡하고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우습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투철한 신념을 더욱 억세게 간직하여야 한다. 총련은 조직으로 주체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상응하는 원수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일군들과 동포들을 김정일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제일동포들은 이역방에서 애국선열들에 의해 마련된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국의 전통이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깃듯이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총련의 대중적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제일본조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총련일군들은 늘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살고 일하면서 대중의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며 제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치는 동포군중의 참된 복무자, 실무부대가 되어야 한다. 지역적지정인 지를 강화하고 말한다 총련일군들의 생활하며 조경과 녀성동맹, 청상회를 비롯한 계층별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부단치는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합법적지위와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파쇼탄압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적대정책과 탄압한 인연 친해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모든 령도를 여기에 집중시키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우리 말을 배우고 쓰기 위한 운동과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제일동포사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약동하며 민족적정서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운동의 주역인 새 세대 청년들,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짜고쳐야 애국위업의 대를 굳게 잇고 동포군중지반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숭고한 민족적의무이다.

총련의 권위와 위력은 곧 총련의 권위와 위력이며 조국의 영예와 존엄은 곧 제일동포들의 영예와 존엄이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 옹호하며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한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은 조국해방 일흔셋이 되는 올해에 우리 민족기리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기리의 기치아래 해배의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련대와 단합을 강화하며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전진적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앞장서나가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활동과 총련애국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일본조신인운동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을 가로놓여있지만 시련은 일시적이며 총련의 애국적열의는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축복해주시고 회의를 총련중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들진두에 높이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셨고있기에 총련은 그떡없으며 제일조신인운동의 위력은 더욱 부단치는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합법적지위와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파쇼탄압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고있는 황해남도의 드넓은 협동벌에서 화산식정지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한해농사를 최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전투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풀을 총괄발시켜 모내기를 최적으로 정적으로 다스려 끝내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반히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가운데서도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된 하여 주신 유훈부러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협동벌을 씩게 하는 화산식정지사업

황해남도에서

업적이 넘쳐있는 배천군 조옥회협동농장에 나간 당직책임 일군은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정치사업자료를 현실과 결부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해 주면서 전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펼쳐나 가이여 연백벌에 푸른로적자리를 높이 쌓고 땅에 충성의 보고를 물려주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또한 물결이형농법을 받아들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현황을 료해하고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정단군 화산협동농장에 나간 도당일군은 농업근로자들에게 일도 같이하고 일할때도 래도 부르고 선동원설도 하면서 그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을위전으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벽성군 옥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에 나간

집중강연선전과 경제선동대활동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도당위원회 해 당 일군들과 직의강연자료들이 강연 및 정치사업자들과 지원물자를 가지고 모내기전투현장에서 달려나가 화산식정지사업을 벌려나가고있다. 도와 시, 군들의 포진지강연강사들이 물결을 포진지에 달려나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도면에 도 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집중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모내기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한껏 고조시키고있다. 해주시와 여러 군들의 기공예술훈동대원들도 포진경제선동의 부수리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의 성과적결실을 위한 사상공세를 려우대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봄철국토관리사업에서 거둔 성과

남포시에서

남포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봄철국토관리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28km에 달하는 도로를 기술개진하였으며 23만m²의 강바닥을 파내고 1400m의 옹벽을 건설 한데 이어 10만m²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대동강주변을 정리하였다.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과 산림복구전투, 공지마다에 지지시설을 심고 가꾸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분들에서 수렴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를, 일리와 마을들을 보다 분명하게 꾸리고 정삼유지, 정삼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국토관리사업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왔다.

시의 일군들은 강력한 국토관리총동원지휘부를 꾸리고 10여개의 부문별분과를 내오는 등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운데 맞게 국토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분석총화하면서 시 사업들을 계속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번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세멘트와 철근, 피와 혼석 등 자체보강사업을 앞세우고 현상에서 기술적도를 짜고쳐서 7개소의 다리간간구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주요도로를 따라 근 3000개의 안전막돌을 세웠다. 일군들의 치밀한 작업을 기초로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의하여 선령-감문도로보수전투가 며칠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주요도로들에 대한 보수공사와 가로수교제사업을 진행하였다.

강화현정리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준철선과 유양식굴착기, 대형화물차

랑강도의 감자산지들을 적극 지원

성, 중앙기관들에서

의 모든 농장작업반들에 감자농사파화를 위한 물질기술적도대가 든든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모든 농장작업반들에 농업생산기술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감자농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된 해당 부문 일군들은 농업생산기술건설계획을 세우고 모든 성, 중앙기관들에서 분담된 과제를 계기에 정적으로 수행하도록 과업을 명백히 주고 앞선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지난해 가을에 이어 올해 봄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현지에 내려와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책임성이 높고 능력이 있는 일군들을 작업반들에 내보내어 감자농사를 적극 도와주면서 농업생산기술들과 함께 문화후생시설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펴내어주었다.

현지에 내려온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은 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로력파운수단을 리용하여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술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으며 수많은 영농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감자농사를 위해 도와줄때 대한 당의 방침을 해설선전하면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해결하였다.

채취공업성의 당직일군은 삼지연군 백상농장 제3작업반에 나가 많은 영농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감자심기를 하면서 그들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면전열에 불려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석관공업성의 일군은 삼지연군 보서농장 제1작업반에 성의 정무원들이 지냈기 마련인 영농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당의 뜻을 받들고 배두대지에 뿌리내린 제대군인농업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로명성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림업성의 책임일군은 대동단군 백산농장 제6작업반에 나가 감자심기와 농업생산기술건설정형을 료해하고 많은 영농물자를 넘겨주었다.

인민대학습당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법의

량강도의 감자산지들을 적극 지원

성, 중앙기관들에서

의 모든 농장작업반들에 감자농사파화를 위한 물질기술적도대가 든든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모든 농장작업반들에 농업생산기술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감자농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된 해당 부문 일군들은 농업생산기술건설계획을 세우고 모든 성, 중앙기관들에서 분담된 과제를 계기에 정적으로 수행하도록 과업을 명백히 주고 앞선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지난해 가을에 이어 올해 봄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현지에 내려와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책임성이 높고 능력이 있는 일군들을 작업반들에 내보내어 감자농사를 적극 도와주면서 농업생산기술들과 함께 문화후생시설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펴내어주었다.

현지에 내려온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은 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로력파운수단을 리용하여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술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으며 수많은 영농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감자농사를 위해 도와줄때 대한 당의 방침을 해설선전하면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해결하였다.

채취공업성의 당직일군은 삼지연군 백상농장 제3작업반에 나가 많은 영농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감자심기를 하면서 그들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면전열에 불려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석관공업성의 일군은 삼지연군 보서농장 제1작업반에 성의 정무원들이 지냈기 마련인 영농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당의 뜻을 받들고 배두대지에 뿌리내린 제대군인농업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로명성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림업성의 책임일군은 대동단군 백산농장 제6작업반에 나가 감자심기와 농업생산기술건설정형을 료해하고 많은 영농물자를 넘겨주었다.

인민대학습당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법의



당장형 일흔셋을 로력성적으로 빛내일 일범안고 대상생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획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 남 찍음

풍요한 가을을 펼쳐갈 준비가 열정적

애국농민

현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식량문제, 이는 인민생활상에서 관건적 과업이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만 해결하면 적들이 제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우리 사회주의는 쓰러짐이 없고 혁명과 건설을 마음 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다.

농업생산의 중요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 1계 단계 1선참호,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적 방략으로 정하였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현실적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것은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농업생산의 성과를 높여야 할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근로자들이이다. 우리 당앞으로 새겨진 낫,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앞으로 새겨진 낫의 무게를 실감없이 지니고 이 나라 농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한다.

신군사대의 애국농민, 이는 사회주의혁명동맹의 주인공인 농업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칭호중 가장 값높은 칭호이다.

하더면 오늘날 애국농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 길은 곧 자기 령도자를 신념과 의지, 향심으로 만드는 총정 의 길이다. 우리 혁명은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도 태평항해와 같은 신념의 인간들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믿음직하게 지켜 살것을 바라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태평항해처럼 우리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원수님을 따르는 길이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진후 우리 혁명이 승전을 겪을 때 《수상님! 얼굴이 많이 붉어진 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자들이 인민생활에 어찌고여쭙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 살게 되었으니 일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지 종파자들이 이기겠습니까? 녀름마십시오. 우리는 수당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수령님만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를 인민모두의 신념과 의지를 말씀하신 태평 항해이다.

그 할머니의 말씀에서 수령님 얼마나 큰 새로운 용기를 얻으셨고 종파자들을 철저히 쳐부실 결심을 굳히셨던가. 태평항해이다.

그는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었다. 나라 없던 지난날 지지리도 못살아 쓰러진 설을 만이 차있던 그의 가슴에 당과 수령을

반들줄 아는 열화같은 총정이 소용돌이치게 해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땅을 주시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은 해방전 피눈물을 뿌리면서 정처없이 헤매야 했던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은인이셨고 생의 전부이시었다.

하기에 그는 자라나지 않았으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웠으며 수령님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기 위하여 피타게 일하였다.

행복한 나날에나 어려운 나날에나 한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믿고 따른 태평항해하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랑이다.

태평항해와 같은 신념의 인간들로 굳건한 철의 대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농업근로자들이 오늘 경제하는 우리 원수님의 두리에 천금만금의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

애국농민, 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에 온넉을 바치지 않는 농민을 다하기 위해 아글라글 헌신하는 실농군들이 받아안을 수 있는 값높은 칭호이다. 우리 당과 조국의 추억속에 길이 빛나는 애국농민 김제원의 아름다운 생은 오늘도 우리 농민들로부터 감동과 사랑을 받아안고 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나 새겨져 있다.

김제원리, 그의 반신상, 애국열사... 얼마나 많은 애국농민들이 우리 조국의 장한 아들인 김제원의 뒤를 좇았어 이어오던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조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나날 90년대의 김제원이 펼쳤을 맹세하며 121의 애국기를 읽고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오셨고 장군님께서 삼가 편지를 올린 은파군 양동협동농장 제 7작업반 농장원들의 애국적소행을 잊지 않고있다.

이들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시었던가.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는 호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양동협동농장 제 7작업반 농장원들이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고 호소할것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애국충정의 발현입니다!

양동협동농장 제 7작업반 농장원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값높은 평가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고있다.

세명군 김제원협동농장, 황주군 통천협동농장... 전국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 농민인 우리가 농사꾼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장군님과 생사유명을 함께 하는 인민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고 함께 애국미용을 높이 발휘하였다.

황주군 통천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우리가 비록 허리띠를 조이는 한이 있어도 애국미를 바치는것이 농민의 도리라고 하면서 강령이 농사에서 전국적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니겠다는 결의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렸다. 편지를 받아 보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농민의 본분을 다하려는 이들의 소행에서 우리 당에 대한 단련되는 충정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고,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는 해방후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지지해나갔고 종파분자들과도 투쟁을 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전선원호사업에서도 공적을 세웠고 청년들을 데리고 원수들과 싸우며 마을을 지키는데도 앞장섰으며 전후에 농협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작가에게 그를 원형으로 하여 소설을 쓸데 대 적 있었던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책임감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이런 위대한 헌신만한 투쟁에도 한몸내대실수 있는것이였다.

그날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애국농민, 이는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지닌 사람들과만 받을수 있는 값높은 칭호이다.

농사의 주인은 말처럼 험하게 지킬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순간순간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 당에 대한 충정으로 목욕히 헌신의 길을 걷는 진짜배기농민군로자만이 땅을 지킬수 있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질수 있다.

진짜배기농민은 어떻게 생을 수놓는 사람인가. 여기에 그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한 인민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어버이수령님! 정말 대단히 미안합니다. 농민들이 제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겠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 농사철이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또 많은 로동자, 사무원들과 인민군인들,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촌을 도와주시니 농사군으로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령님을 만나뵈을 면목이 없습니. 목덜미까지 붉게 상기되어 눈길조차 들지 못하는 그, 안달수령님이였다.

그의 진정이 내내인 친금보다 귀중한 참된 인간의 모습앞에서 우리 수령님께서서 못내 감동하시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늘 걸으시는 포진길, 그 길에서 농사꾼의 본분을 두고 얼굴뜨거워하며 수령님을 뵈을 면목이 없다고 향심의 가책을 토로한 사람이 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진정이 대견하시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실히 로혁명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올해에 농민들이 제법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향심상가책을 많이 받았을 같다. 나는 그 동무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짜배기농사꾼을 발견하시었다는 기쁨이 우리 수령님의 대내같은 가슴을 짝 짝 울렸다. 그 기쁨이 하도 귀중하여 수령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있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그의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그는 해방후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지지해나갔고 종파분자들과도 투쟁을 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전선원호사업에서도 공적을 세웠고 청년들을 데리고 원수들과 싸우며 마을을 지키는데도 앞장섰으며 전후에 농협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작가에게 그를 원형으로 하여 소설을 쓸데 대 적 있었던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책임감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이런 위대한 헌신만한 투쟁에도 한몸내대실수 있는것이였다.

그날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애국농민, 이는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지닌 사람들과만 받을수 있는 값높은 칭호이다.

농사의 주인은 말처럼 험하게 지킬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순간순간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 당에 대한 충정으로 목욕히 헌신의 길을 걷는 진짜배기농민군로자만이 땅을 지킬수 있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질수 있다.

진짜배기농민은 어떻게 생을 수놓는 사람인가. 여기에 그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한 인민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어버이수령님! 정말 대단히 미안합니다. 농민들이 제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겠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 농사철이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또 많은 로동자, 사무원들과 인민군인들,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촌을 도와주시니 농사군으로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령님을 만나뵈을 면목이 없습니. 목덜미까지 붉게 상기되어 눈길조차 들지 못하는 그, 안달수령님이였다.

그의 진정이 내내인 친금보다 귀중한 참된 인간의 모습앞에서 우리 수령님께서서 못내 감동하시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늘 걸으시는 포진길, 그 길에서 농사꾼의 본분을 두고 얼굴뜨거워하며 수령님을 뵈을 면목이 없다고 향심의 가책을 토로한 사람이 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진정이 대견하시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실히 로혁명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올해에 농민들이 제법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향심상가책을 많이 받았을 같다. 나는 그 동무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짜배기농사꾼을 발견하시었다는 기쁨이 우리 수령님의 대내같은 가슴을 짝 짝 울렸다. 그 기쁨이 하도 귀중하여 수령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있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그의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그는 해방후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지지해나갔고 종파분자들과도 투쟁을 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전선원호사업에서도 공적을 세웠고 청년들을 데리고 원수들과 싸우며 마을을 지키는데도 앞장섰으며 전후에 농협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작가에게 그를 원형으로 하여 소설을 쓸데 대 적 있었던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책임감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이런 위대한 헌신만한 투쟁에도 한몸내대실수 있는것이였다.

그날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애국농민, 이는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지닌 사람들과만 받을수 있는 값높은 칭호이다.

농사의 주인은 말처럼 험하게 지킬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순간순간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 당에 대한 충정으로 목욕히 헌신의 길을 걷는 진짜배기농민군로자만이 땅을 지킬수 있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질수 있다.

진짜배기농민은 어떻게 생을 수놓는 사람인가. 여기에 그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한 인민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어버이수령님! 정말 대단히 미안합니다. 농민들이 제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겠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 농사철이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또 많은 로동자, 사무원들과 인민군인들,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촌을 도와주시니 농사군으로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령님을 만나뵈을 면목이 없습니. 목덜미까지 붉게 상기되어 눈길조차 들지 못하는 그, 안달수령님이였다.

그의 진정이 내내인 친금보다 귀중한 참된 인간의 모습앞에서 우리 수령님께서서 못내 감동하시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늘 걸으시는 포진길, 그 길에서 농사꾼의 본분을 두고 얼굴뜨거워하며 수령님을 뵈을 면목이 없다고 향심의 가책을 토로한 사람이 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진정이 대견하시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실히 로혁명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올해에 농민들이 제법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향심상가책을 많이 받았을 같다. 나는 그 동무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짜배기농사꾼을 발견하시었다는 기쁨이 우리 수령님의 대내같은 가슴을 짝 짝 울렸다. 그 기쁨이 하도 귀중하여 수령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있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그의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그는 해방후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지지해나갔고 종파분자들과도 투쟁을 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전선원호사업에서도 공적을 세웠고 청년들을 데리고 원수들과 싸우며 마을을 지키는데도 앞장섰으며 전후에 농협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작가에게 그를 원형으로 하여 소설을 쓸데 대 적 있었던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책임감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이런 위대한 헌신만한 투쟁에도 한몸내대실수 있는것이였다.

그날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우리 교사포동대 군인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지휘하에 적기(B-26) 2대를 추격하였다.》

가 중요하기때문에 국가주석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도하는 고문을 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하며 삼복의 띄약별도 마다하지 않고서 고문들에게 사랑의 자락을 남기신 어버이수령님.

사방에서 적들이 메저어 달려들던 시련의 나날 총대로 한치한치의 땅을 지켜주시고 조국밖의 모든 포진들을 사죄주시고 농촌의 대지답게 번듯하게 정리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 영원한 일편단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은 포진을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귀중히 여기고 땅에 온넉을 다 바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추억속에 영생하고 조국이 감동하던 어버이수령님. 이는 어떤 모한포진에라도, 강방이 한포기에도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영애이다. 한살의 기쁨을 장만하여도, 한뼉의 눈물 정리하여도 우리 농민들의 심장은 오로지 이 값높은 영애를 빛내이려는 일념으로 뜨겁게 고동쳐야 한다.

애국농민의 긍지와 영애는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태평항해처럼 우리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원수님을 따르는 길이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태양의 빛발따라 주체의 길, 애국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총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총련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비범한 명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결성되고 승리의 한길을 걸으며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해외교포 조직이다.

뜨거운 감화이고 총련결성 예순을 맞이하는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자기 수명, 자기 조국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투철한 믿음을, 뜨거운 의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길을 굳게

이 이어가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우리의 귀중한 한식출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낸다.
 본사기자 허영민
 본사기자 라영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기자와 회견
 총련결성 60돐 재일본조신인 감사단 단장인 배익주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부의장이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총련결성기념일을 맞아 주체적해방교포운동의 개척자, 명도자인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람세찬 이력에서 길 걸 물라하던 재일동포들을 두고 마음쓰시며 주제 44(1955)년 5월 25일 총련을 무어주시었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총련의 존재에 대해서도,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세계해방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영예 떨치는 총련의 자랑은 현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총련을 무어주시신것이 얼마나 특출한 공적으로 되는가 하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된다.
 승리와 영광의 자랑스러운 년들을 아로새겨오는 총련의 역사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도하에 총련이 힘차게 전진해 오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밑에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에 각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애국충정으로 순결하고 일심단결로 강위력한 조직

세계에는 1억명이상의 해외교포들이 있으며 나라데로의 해외교포조직들도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의 총련과 같이 애국충정으로 순결하며 일심단결로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은 없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 고귀한 전통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뜻을 올리던 그때부터 뿌리내렸으며 애국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나날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드높이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되었다.



취고 위대성전념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면 나날에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대외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하고 애국투쟁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조직을 자기 수명의 사상과 로선, 명도에 충실하며 사회주의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켰것, 바로 이것이 총련이 지난 60년간 이룩한 수많은 성과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과이다.

한 정치적관망가도를 로괄화하면서 동포사회자체를 없애려고 악착스럽게 날뛰고있는 현실은 동포들모두를 동포민족권에 굳게 결속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총련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철저히 동보중심, 생활밀착으로 전환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다 동포민족권에 망라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을 확고히 하여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총련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철저히 동보중심, 생활밀착으로 전환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다 동포민족권에 망라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을 확고히 하여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민족배타주의가 살벌하고 동화, 귀화책동이 우심한 자본주의일본땅에서도 재일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아름답게 꽃피워왔다. 이것은 총련이 지난 60년간 민족성고수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이다.

민족의 노래와 춤이 있다. >고 하면서 동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가림없이 찾아가 민족의 노래와 춤무대를 펼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예나 지금이나 총련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적대감과 차별의식때문이다.

해, 인연유린행위가 그칠새 없었다. 섬나라족속들의 가증스러운 수법과 기정은 날로 악랄해져 최후에는 총련중앙본부의 책임일군들을 <범포자>로 몰아대는데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하에 총련이 힘차게 전진해 오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밑에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오고 있다.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공조놀음

최근 피외역적배당이 미국과 함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고도 반공화국도발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최근 피외역적배당이 미국과 함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고도 반공화국도발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고 <동맹> 강화니, <연합적력>이니 하고 고이내며 상진을 등에 업고 동족을 어제 보고 발랑하고있으니 이런 천치는 보지 않음이다.

23일 평양을 출발한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 참가자들이 24일 개성을 통과하였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들의 지향을 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